

이종연(서울액션스쿨 대표)

# 액션 배우는 스스로 몸을 만들고,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다

액션 배우라는 말에 선입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액션이라는 말이 거칠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종연 대표가 멀리서 환한 웃음으로 맞아준다. 서글서글한 웃음과 날렵한 몸매는 액션 배우라기보다는 옆집 형님 같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투리는 상대방을 더욱 편안하게 배려한다.



## ■ 액션 배우로의 입문

고등학교 시절 이소룡, 성룡 같은 홍콩 액션배우들의 작품들이 한참 인기였어요. 그들이 출연하는 영화들을 접하면서 나도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학교보다는 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각종 격투기를 연마하며 굳은 다짐을 했죠. 곧바로 액션배우의 길로 입문한 것은 아니고, 군대 가기 전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 액션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정진화)의 친구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의 소개로 서울로 이사를 하고,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액션 연기도 배우게 됐죠. 그 인연이 이어져 군대를 다녀와서도 액션 배우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어요.

## ■ 액션 배우, 반대는 없었는지

(웃음). 지금도 부모님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세요. 방송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 외에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자식이 위험한 일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을 하세요. “너는 방송일 한다면서 텔레비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웃음) 지금까지 잘 해왔고, 이 일을 하면서 늦게 결혼도 했는데, 아내도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이젠 든든한 응원군이죠.



### ■ 액션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

제가 입문할 당시에는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액션 배우들의 등급제라든지, 촬영여건 등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직업 자체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액션스쿨 게시판에 “돈은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일자리는 많은가요?” 등의 질문이 올라오면 아주 현실적으로 답해주죠. “돈 못 벌어요. 일자리도 별로 없고 항상 기다리며(대기) 살아요.” 액션 배우의 길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1, 2년 젊은 혈기로 뛰어들지만, 어느 직장이든 위로 올라가면서 누릴 수 있는 자리(무술감독이나 지도자의 자리)는 한정적이고, 그러면서, 일에 대한 매력마저 사라지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액션에 계속 빠져드는 열정 없이 직업으로 생각하기에는 액션 배우의 길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 ■ 액션의 매력

돈도 안 되고 일은 힘든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러게요.(웃음) 아마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희열감 때문인 것 같아요. 촬영 때문에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본다. 너무나 흥미 있으면서도 내가 해냈다는 희열이 온몸을 휘감는 거죠.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고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은 “우와 대단하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뭐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와 마찬가지로요. 제가 차량 충돌 씬이나 전복 씬을 찍는다고 했을 때, 리허설에 들어가면 겁이 나요. 사람인데 어떻게 겁이 안 나겠어요. 그 순간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웃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죠. 그런데, 리허설을 하면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레디고 소리와 함께 촬영이 시작되고 차량이 공중을 날라 전복되면서 감독의 OK 싸인이 떨어지며 밀려드는 희열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는 희열감이 한 번, 두 번, 열 번이 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빠져들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 서울액션스쿨의 교육과정

교육생들을 3월에 모집해서 4월부터 교육을 해서 10월에 모든 과정이 끝나요. 마지막에는 졸업 작품을 제작해서 전체 평가를 받아요. 모든 인원을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촬영현장에 나가기 전에 한 달에서 길게는 세 달까지 재교육 과정을 거쳐 선발하죠.

하루에 4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1시부터 5시까지 50분 교육, 10분 휴식. 체력적으로 몸이 못 버티니까 시작할 때 80명 정도 되던 인원이 한 달이 지나면 40명 정도 남아요. 처음에는 체력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후에는 손으로 하는 액션, 칼 들고 하는 액션이 진행되고, 다음에는 승마, 레펠, 와이어 훈련들이 이어지죠.

### 교육생들을 보면서

기대와 안타까움이 공존한다고 할까요. 액션 배우의 첫 번째 조건은 아무리 봐도 순발력인 것 같아요. 가만히 지켜보면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체력훈련부터 교육이 시작되면 교육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그 만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붙잡지는 않아요. 교육 과정에서 포기하는 친구들은 순간의 고비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주어져도 포기하거든요.

후배들은 이 길에 들어선 이상 프로예요. 프로는 스스로 몸을 만들고 관리해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힘든 교육과정을 잘 버티내서 진정한 액션 배우로 거듭나고, 액션의 진정한 매력에 푹 빠져 액션을 즐길 줄 알 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 유명 배우들이 연습에 임하는 자세

요즘 배우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액션 씬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와서 연습하고, 시간이 안 될 때에는 촬영 당일에 와서 몸이라도 풀고 가게 해요. 액션은 말 그대로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의 정도에 따라 촬영현장에서 곧바로 결과물로 나오는데, 연습이 없으면 잘못하면 크게 다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여배우들도 열심히 하는데, 아직은 대역이 많이 필요해요. 매년 교육생 중에 여자들이 한 두 명씩 있어요. 못 버틸 줄 알았는데 교육 잘 마치고, 유명 여배우들의 대역을 잘 소화해 내고 있어요. 요즘은 시청자의 눈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배우 대역을 남자가 하면 게시판에 바로 글이 올라오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아요.(웃음)

### 액션 배우에게 두려움이란

각종 액션을 직접 해보고, 후배들에게 시켜보기도 했는데, 눈빛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5층 건물에서 바닥에 종이상자 몇 개 깔아 놓고 뛰어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겁이 나고,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죠. 그 상태에서 건물에 올라가 있는 배우의 눈을 보죠. 눈빛이 흔들리면 바로 내려요. 두려움이 생긴 상태에서는 뛰지도 못하거나 잘못하면 부상이 뒤따르거든요. 액션 배우에게 두려움은 이겨내야 하는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이죠. 제가 예전에 5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감독님한테 마음 잡으면 아무 때나 떨어트니까 카메라를 계속 돌려달라고 했어요. 카메라는 계속 돌고, 저는 옥상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한 개비, 두 개비... 일곱 개비까지 한자리에서 다 피고, "나 똥니다."하고 바로 뛰었어요. 이게 제가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이죠.(웃음) 액션 배우에게 두려움이란 매번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 ■ 액션에는 감정이 있다

액션이라고 무조건 치고 박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싸우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야지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싸운다.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횡검에 싸우는지, 평생의 원수와 싸우는지 알아야 되요. 이 둘의 싸움이 성격이 전혀 다르듯 우리나라는 감정도 다르거든요. 몸으로 그 다른 감정이 표현돼야 진정한 액션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이상 우리는 프로예요. 몸을 강하게 만들면서도 작품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능력을 키우므로 더욱 발전해나가는 거죠.

### ■ 기억의 작품과 현재 참여하는 작품

기억에 남는 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 방영됐던 '천하일색 박정검'을 꼽을 수 있겠네요. 배종옥 씨가 역척스러운 아줌마 형사로 나왔던 주말드라마였는데, 일주일이면 2~3일을 촬영했어요. 특히, 배종옥 씨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액션 씬을 스스로 소화해내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작품에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배우들이 촬영에 열심히 임하고, 즐거움도 있고, 촬영이 즐거우니 작품도 살아났던, 유쾌한 작품이었어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작품은 SBS드라마 '대물'에서 권상우 씨의 액션부분을 일부 촬영했고, 케이블의 '별순검 시즌3'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 별순검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수사극이어서 전반적으로 액션 씬이 많아요.

### ■ 선진국의 액션

선진국은 시간의 개념이 철저한 것 같아요.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시키고, 시간이 오버된 것에 대해 보상해 주는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에요.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이 작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제작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액션의 과정이 과학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촬영에 들어가요.

지인이 미국을 갔는데 자동차 한 번 뒤집는데 3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설치, 하루는 리허설인데 자동차의 전복 위치, 전복 위치까지 올 때의 차량의 속도, 바닥과의 마찰, 맞바람 속도까지 계속 측정해서 평균값을 얻어 낸대요.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촬영을 한다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촬영 전에 세 네 번 왔다갔다 해보고 끝이에요. 제작비 문제로 촬영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거죠. 우리나라도 외국의 좋은 사례가 많이 적용되어 더욱 멋진 액션들을 선보였으면 좋겠어요.